

## 외국문학연구회와 양주동의 번역 논쟁\*

김 옥 동

단독,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27년 양주동이 ‘외국문학연구회’가 발행한 잡지 《해외문학》에 실린 번역 작품을 비판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번역 논쟁을 다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양주동은 이 잡지에 실린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의 번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그는 이하운과 김진섭을 비롯한 번역자들이 1) 자국어에 있는 데도 난잡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2) 의역보다는 축자적 직역을 시도하였고, 3) 자국어에는 없는 ‘비어(非語)’나 외래어 또는 신조어 등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든다. 양주동의 이러한 비평에 대하여 이하운과 김진섭은 반론을 제기하여 세계 언어사를 보아도 한 국어의 어휘는 번역 과정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들은 이러한 외래어나 신조어는 처음에는 아무리 생경하게 느껴지더라도 곧 자국어로 흡수되어 자국어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문학연구회를 창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정인섭도 이하운과 김진섭의 편을 들면서 외국문학 작품을 자국어로 옮길 때 번역자는 어쩔 수 없이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의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양주동은 앞서 내세운 입장을 철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한 번 번역에 대한 소신 있는 태도를 천명한다. 한편 외국문학연구회의 번역에 대한 양주동의 평가에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양주동은 《해외문학》이 출간되기 4년 앞서 문예지 《금성》을 창간하여 번역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번역 방법론을 둘러싸고 양주동과 외국문

---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학연구회 회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논쟁은 획기적 사건으로 한국 번역사에  
서 최초의 의미 있는 논쟁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양주동, 김진섭, 이하윤, 정인섭, 외국문학연구회]

1926년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조직한 ‘외국문학연구회’와 그 기관지 《해외  
문학(海外文學)》은 한국 번역사에서 그야말로 획기적 사건이었다. 물론 그들보  
다 8년 앞서 1918년 문예주간지 《태서문예신보(泰西文藝新報)》가 창간되면서  
직역(直譯)의 깃발을 내걸고 한국 번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하였지만  
의욕만 앞섰지 막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외국문학연구회의  
활동은 한국 번역사에 여러모로 명실공히 큰 업적을 남겼다. 그 이듬해 이 연구  
회의 회원들은 《해외문학》을 발간하면서 ‘창간 권두사’에서 “무릇 新文學의  
창설은 外國文學 輸入으로 그 記錄을 비롯한다. 우리가 外國文學을 研究하는 것  
은 決코 外國文學 研究 그것만이 目的이 아니오 첫째에 우리 文學의 建設, 둘째  
로 世界文學의 互相 範圍를 넓히는 데 있다”<sup>1)</sup>고 천명한다. 이처럼 외국문학연구  
회 회원들은 단순히 외국 문학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  
가 외국 문학 연구를 통하여 한국 문학을 중흥하고 발전시키려는 좀 더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문학연구회가 이룩한 업적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번역의 수준을 한 단  
계에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이 연구회 회원들은 외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소개  
하되 될 수 있는 대로 중역(重譯)을 피하고 어디까지나 기점 텍스트에서 직접 번  
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태서문예신보》만 같아도 겉으로는 번역 방법으  
로 중역이 아닌 직역(直譯)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역에서 젖을 때  
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 무렵 안서(岸曙) 김억(金億)이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시도하였지만 때로는 일본어 번역이나 한자어 번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은 《해외문학》에 원문 텍스트에서 직역한 번역  
작품만을 실었다. 1927년 창간호를 내고 몇 달 뒤 같은 해 7월 제2호를 발간한  
채 종간하고 말았기 때문에 외국의 훌륭한 작품을 충분히 직역해 내지는 못한

1) ‘창간 권두사’, 《해외문학》 창간호 (1927년 1월), 1쪽. ‘외국문학연구회’를 흔히 ‘해  
외문학파’라고 부르지만, 이 호칭은 카프(KAPF)의 문학인들이 경멸적으로 부르기 시  
작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해외문학파’라는 명칭은 박용철(朴龍喆)의  
「문학 유파의 개념」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점이 무척 아쉽다.

더구나 외국문학연구회와 《해외문학》은 번역과 관련하여 일련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큰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 동안 번역 태도나 번역 방법과 관련하여 문인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나 논쟁을 벌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다만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같은 일간신문이 외국 문헌을 무분별하게 번역하는 관행을 “노예적 망필”로 매도하면서 비판하는 논설을 게재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sup>2)</sup> 그러나 《해외문학》이 출간되고 난 뒤부터 한국 문단에서 번역을 둘러싼 논의가 좀 더 진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해외문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영문학도 이하운(異河潤)과 독문학도 김진섭(金晉燮)의 번역에 대하여 무애(無涯) 양주동(梁柱東)이 처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번역과 관련한 일련의 논쟁을 심도 있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번역 이론에서 언제나 비롯되는 축역과 의역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토착어와 외국어나 외래어의 사용을 둘러싼 번역어 문제 등을 밝힐 것이다.

## I.

《해외문학》 제2호가 간행되고 여덟 달 정도가 지난 1927년 3월 양주동은 《동아일보》에 「《해외문학》을 읽고」라는 글을 세 차례에 걸쳐 기고한다. 이 글을 기고할 무렵 그는 와세다(早稻田)대학에서 불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이 글 끄트머리에 “1927. 2. 1. 於東京”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도쿄에서 이 글을 집필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글은 그가 이 신문에 연재한 「문예비평가의 태도 기타」라는 글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양주동은 먼저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들이 전문 잡지를 창간하여 번역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自國文學의 새로운 建設에 있어서 더구나 조선과 같이 傳說的 國文學의 기초가 빈약한 현상에 있어서 외국문학의 수입 및 그것의 消化는 絶大한 的의를 가

2)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서울: 소명출판, 2010), 56-60쪽; 김옥동, 『근대의 세 번역가: 서재필 · 최남선 · 김억』(서울: 소명출판, 2010), 201-11쪽.

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외국문학을 앎으로써 우리의 문학적 소양을 넓힐 뿐만 아니라 그 攝取한 지식으로써 自家의 독특한 경지를 새로 개척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문학의 수입은 그 자체로도 필요하거니와 그것을 우리 文學建設의 참고자료로 삼는 데 더 한층 의의가 있을 것이다.<sup>3)</sup>

위 인용문에서 양주동이 말하는 ‘진설적 국문학’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다. 아마 ‘傳統的 국문학’의 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양주동은 한국문학의 발전에서 외국문학연구회의 의의를 찾는다. 실제로 양주동의 지적처럼 외국문학연구회는 ‘창간 권두사’에서 외국문학 연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권두사를 쓴 필자는 “우리는 가장 敬虔한 態度로 먼저 偉大한 外國의 作家를 對하며 作品을 研究하여써 우리 文學을 偉大히 充實히 세워노며 그 光彩를 독거 보자는 것이다”<sup>4)</sup> 하고 천명하였다. 실제로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해외 문학의 번역은 자국의 문학이 발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제프리 초서 Geoffrey Chaucer가 라틴 문학을 비롯한 유럽 문학의 번역의 초석 위에 영문학의 집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독일도 마찬가지여서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가 라틴어 성서를 중부독일어계인 작센어로 번역함으로써 독일어뿐만 아니라 독일문학이 발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양주동은 이러저런 이유로 어휘가 풍부한 한국의 상황에서 외국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難事業’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이렇게 풍부하지 못한 어휘로써 완전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殆히 절망이라 할 것이다”<sup>5)</sup> 하고 밝힌다. 번역의 어려움을 말한 뒤 양주동은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이 《해외문학》에 번역한 외국문학 작품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논평한다. 그런데 양주동이

3) 양주동, 「《해외문학》을 읽고」, 《동아일보》 1927년 3월 2일; 『양주동 전집·11』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8), 188쪽.

4) ‘창간 권두사’, 《해외문학》 창간호, 1쪽. 이 창간 권두사의 끝에는 ‘松’이라는 약어가 적혀 있다. 이 약어는 이 잡지 창간호의 편집인 겸 발행인인 이은송(李殷松)일 것이다. 그러나 잡지 마지막 ‘편집여언(編輯餘言)’의 끝에는 ‘松’ 자 대신에 ‘殷’ 자를 사용하고 있어 이 연구회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눈솔 정인섭(鄭寅燮)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인섭은 ‘눈솔’을 아호로 사용하였지만 필명은 ‘눈솔’을 한자어로 표기한 ‘설송(雪松)’이나 ‘화장산인(花藏山人)’을 사용하였다.

5) 양주동, 「《해외문학》을 읽고」, 《동아일보》 1927년 3월 3일; 『양주동 전집·11』, 189쪽.

이 잡지에 실린 번역 작품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 삼는 것은 1) 문체, 2) 직역과 의역, 3) 번역어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는 산문 번역이건 운문 번역이건 번역자는 모름지기 경문체(硬文體)가 아닌 연문체(軟文體)를 구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첫째로 불만은 소설 번역에 있어서 譯文體가 자못 낡다는 그것이다. 이것은畢竟 생각건넌 독자다 조선 현대문에 親熟치 못한 까닭인가 한다. 現今 조선 문단상에서 소설의 문체가 거의 軟文體로 純國文式을 取하는 것은 既定된 사실인데 역자는 어쩐 일인지 苦澁한 한자를 써 가면서 論文體의 硬文을 취하였다. 이것은 爲先 우리가 읽기에도 서투른 감을 받거니와 우리 글을 존중하는 의미로 보든지 또는 민중적 여부의 점으로 보든지 不可한 일이다.<sup>6)</sup>

양주동은 한국 문단의 경향과 역행하여 번역자들이 마치 연구 논문을 집필하듯이 ‘고삽한’ 한자어 사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렇게 난잡한 번역 문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번역자로 그는 이하운과 김진섭을 예로 든다. 이하운은 아나톨 프랑스의 「神父의 木犀草」와 「제스타스」이다. 실제로 앞의 작품에서 이하운은 “拋棄를 實行하며 犧牲의 愉樂 外에 다른 愉樂을 알지 못하든”이니, “木犀草를 심는 罪業는 虛榮을 自許하였다”니 “鼻孔에 護衛를 두지 안었섯다”니 하는 문체를 구사한다.<sup>7)</sup> 그러나 이하운이 좀 더 ‘고삽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은 「제스타스」에서이다. 특히 그는 종결형 동사형에서도 한자어를 즐겨 구사한다. 가령 “말의 더러운 입김을 뽀우에 感하는 일도 잇섯다”(81쪽)니, “그에게는 無垢와 純潔과 無限한 希望이 生起하였다”(83쪽)니 하는 문장이 좋은 예이다. 이 두 문장에서 ‘感하는’은 ‘느끼는’으로, ‘生起하였다’는 ‘일어났다’로 번역하였더라면 아마 좀 더 한국어다웠을 것이다. 또 이하운은 “그는 待하였다”(83쪽)니 “不幸이도 이 計劃은 失敗를 當했다”(85쪽)니 하는 문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도 ‘待하였다’를 ‘기다렸다’로, ‘失敗를 當했다’를 ‘실패했다’로 옮겼다면 아마 양주동한테서 번역 문체가 “자못 낡다”고 비판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양주동은 김진섭이 하리듯히 만(하인리히 만)의 「門前의 一步」를 난잡한

6) 앞 글, 189쪽.

7) 《해외문학》 창간호, 77쪽. 앞으로 이 잡지에서의 인용 쪽수는 본문 안에 직접 적기로 한다.

한자어를 구사하여 번역한 ‘好例’로 간주한다. 실제로 김진섭은 ‘凝塊’, ‘被覆’, ‘疾驅’, ‘脆旣’, ‘段丘’, ‘海角’, ‘相距’, ‘纏繞’, ‘擔架’, ‘跪坐’, ‘躁狂’, ‘柔隨’, ‘喧騷’, ‘接吻’ 등 현대 독자는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초엽의 독자들한테도 어려운 한자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의 번역에서 양주동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표현은 “底身の 體로 가만이 빠져나왔다”(88쪽)니, “그의 作爲를 期待리고 歡呼하고 잇는 群衆의 一塊가 그의 뒤를 싸라다”(89쪽)니 “그의 손은 玉坐의 脇息에서 痙攣하얏다”(94쪽)니 하는 문장인 듯하다. 처음 두 문장은 두세 번 읽으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문장은 아무리 읽어도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脇息’은 일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여서 일본어 사전을 찾아야 겨우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앉아서 팔꿈치를 괴고 몸을 기대는 사방침에서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김진섭은 “그네의 周圍에는 刺繡한 衣服과 銀製의 衣裝가튼 것의 金屬性的 光輝, 寶石 裝飾의 燦光, 瓊玉寶石을 잔득 박은 王冠의 閃華, 沕藥을 쐬린 器具類, 貴金屬으로 置裝한 黃金의 椅子 紫色의 毛氈가튼 것의 曙光이 번적어리었다”(93쪽)라는 문장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한자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윤이나 김진섭보다 더욱 난잡한 한자어를 사용하는 번역자는 ‘려재비(驢再鼻)’라는 필명으로 활약한 불문학도 손우성(孫宇聲)이다. 손우성은 아나톨 프랑스의 단편소설 「크랭크비이」를 번역하면서 양주동이 말하는 ‘논문체의 경문’을 즐겨 사용한다. 예를 들어 손우성은 ‘洽然’을 비롯하여 ‘然이나’, ‘昔時’, ‘畢竟’, ‘自然’ 같은 접속사나 부사를 한자어로 쓴다. 번역자가 만약 ‘매우 흡족한 듯이’, ‘그러나’, ‘옛적’, ‘마침내’, ‘자연히’ 등으로 토착 한국어를 사용하였다면 독자들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손우성은 ‘酒酣軍’이니 ‘如前히’처럼 굳이 한자어를 사용할 필요 없는 경우에도 한자어로 표기한다. 그는 이하윤처럼 “調書 쓰기에는 速하였다”(55쪽)이니 “悔辱을 感하여”(71쪽)니 하는 한자어 동사를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손우성이 일본어식 한자어를 무분별하게 구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의게는 모든 悔辱이란 必然的으로 傳統的, 聖化한 典禮의의 말하자면 禮拜 形式的의 ‘染病할 쇠색기’(Mort aux vathes 巡查를 辱할 晷 쓰는 隱語)라는 形式을 입게 되는 故로 이 形式을 바더 自然 그는 이 違犯者의 말을 알아듯고 固定시켰다. (57쪽)

비교적 짧은 이 인용문에서 손우성은 ‘필연적’ · ‘전통적’ · ‘전례적’ · ‘형식적’ 등 접미사 ‘의’를 무려 네 번에 걸쳐 반복하여 사용한다. 엄밀히 말해서 접미사 ‘-테키(的)’는 원래 일본어에 있는 접미사가 아니라 영어 접미사 ‘-tic’을 빌려다 쓰는 일종의 외래어이다. 어찌 되었든 위 인용문에서 번역자는 일본어식 접미사 ‘적’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을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형용사를 무분별하게 나열해 놓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다.

## II.

양주동은 번역을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난잡한 한자어를 피하여 연문체를 구사할 것과 함께 ‘축자적 직역’보다는 의역을 할 것을 지적한다. 축자적 직역과 의역의 정의에 대하여 양주동은 “원문 一字一句에 충실한 묘사를 힘쓰는 것을 직역체라 하고, 그와 반대로 원문의 대체를 파악하여 자국어에 맞도록 역자가 다소간 자유롭게 譯風을 취하는 것을 의역이라 하는 것이다”<sup>8)</sup> 하고 밝힌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문학 장르에 속한 작품을 번역하느냐에 따라 축자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의역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소설 같은 산문 작품보다 시를 번역할 때에는 더더욱 의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양주동은 “축자적 직역이 까딱하면 도리어 本意 아닌 오역으로 독자에게 느껴진다”<sup>9)</sup>고 밝힌다. 운문을 사용하는 시에서는 산문과는 달라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즉 운율이나 어조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여간 逐字譯을 하려면 一字一劃을 周到히 譯出하여야 할 터이니 이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전체의 詩想과 詩態詩語를 消化하여 의역을 취하는 편이 처음 譯詩를 시험하는 이의 간편한 길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그 전체의 기분과 운율적 諧調를 본뜨려면 아무래도 역자의 자유로운 의역을 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역 없는 한에서 원작을 허물내지 않는 한에서 자유로운 의

8) 양주동, 「문단여시아관」, 《신민》 제26호 (1927년 6월); 『양주동 전집 · 11』, 212쪽.

9) 《동아일보》 1927년 3월 4일; 『양주동 전집 · 11』, 190쪽.

역을 시험하기 바란다.<sup>10)</sup>

양주동은 자유롭게 의역을 하되 그렇다고 “원작을 허물내지 않는 한에서”라고 단서를 붙인다. 물론 자유롭게 의역하면서 기점 텍스트에 충실하다는 것은 한낱 모든 번역자가 추구하려는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독자역과 의역은 마치 물과 불과 같아서 서로 상충하기 일쑤이다. 기점 텍스트의 어휘 하나하나, 어구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다 보면 “원작을 허물내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기점 텍스트를 자유롭게 의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문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다. 양주동은 독자적 직역을 하여 “본의 아닌 오역”뿐만 아니라 줄역(拙譯)을 범한 대표적인 번역가로 또 다시 이하운을 예로 든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양주동의 번역 태도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집필한 또 다른 글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한테서 비판을 받은 뒤 그는 《신민(新民)》에 「문단여시아관(文壇如是我觀)」이라는 글을 기고한다. 이 글에서 그는 의역보다는 독자적 직역을 선호한다.

나는 근본적으로 번역에 있어서 직역체를 더 존중코자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범상한 역자로서 함부로 의역을 취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원작과 상이한 것이 되기 쉬운 까닭이다. 적어도 필자는 번역적 양심에 있어서, 원작의 한자한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주도면밀한 用意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외국류의 표현법과 원작의 기분을 알기 위하여서는, 직역체의 文이 여하히 필요한지 모른다.<sup>10)</sup>

위 인용문만 보면 양주동은 몇 달 전에 내세웠던 태도를 바꾸어 독자역적 직역을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인용문과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 보면 그는 여전히 의역을 선호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위 인용문에서 “근본적으로”라는 부사를 주목하여야 하고, 마지막 문장 “직역체의 문이 여하히 필요한지 모른다”는 구절을 주목하여야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니나 다를까 양주동은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중요한 단서를 덧붙인다. 그는 “직역체의 문이 흔히 역문으로서 실패되기 쉽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독자역을 하다 보면 자국어로 옮긴 번역문이 줄문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이 여기에도 예외는 있

10) 양주동, 「문단여시아관」, 『양주동 전집 · 11』, 211-12쪽.



게 마련이다. 양주동은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가 “순연한 직역을 취하면서도”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의 『줄리어스 시저』와 두보(杜甫)의 시를 번역한 작품이 ‘名譯’이라고 평가한다. 양주동은 계속하여 “역문으로서 비문인 직역문은 오히려 의역만도 못하다. 그러나 너무나 원작과 거리가 먼 의역은, 번역적 가치가 자못 의문이다. 그러하니 요는 역자 스스로가 自家의 번역적 천분과 자국문에 대한 조례를 고려하여서, 직역체와 의역체를 서로 참작함에 있다”<sup>11)</sup>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양주동은 독자역과 의역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번역은 蔽一言하고 자국어와 혼연이 일치되는 것으로써 이상경을 삼는다”<sup>12)</sup>고 잘라 말한다.

### III.

양주동은 《해외문학》에 실린 번역 작품에서 이번에는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역어를 문제 삼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김진섭 씨 譯詩에 ‘不知火’ ‘素人舞臺’ ‘道化劇役者’ 등 非語가 있는 것은 사람을 不快케 함이 있다”<sup>13)</sup>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여기에서 양주동이 말하는 ‘비어’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비문(非文)’이라고 일컫듯이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 어휘를 가리킨다. 김진섭은 19세기 독일 시인 아우구스트 코피슈 August Kopisch의 「不知火」와 하인리히 로이톨트 Heinrich Leuthold의 「어떤 절문 벗에게」라는 작품을 번역하였다. 일본어로 ‘시라누이’라고 하는 ‘不知火’는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휘일 뿐더러 그 뜻을 헤아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비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본어 사전에서는 “밤바다 위에 많은 불빛이 점재(點在)하고 있어 흔들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풀이한다. 작품 전체로 미루어 보더라도 불바다를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가령 “내젓는 곳에 / 밀물은 타고 / 물결치는 火海에 / 내 배는 搖動한다”라든지, “사랑은 불[火]이고 / 나는 배다 / 오오 나를 건져라 / 불꽃에 잠기는 몸을 愛人이여”라든지 하는 구절을 보면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제국주의가 큰 힘을 떨치고 있을 무렵 일본은 해군의 구축함에 ‘시라누이’라는 이

11) 앞 글, 213쪽.

12) 앞 글, 213쪽.

13) 앞 글, 213쪽.

름을 붙였다. 또한 최근 들어 일본 만화나 게임에서도 영웅적인 주인공에 흔히 이러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김진섭은 로이톨트의 「어쨌든 질문 베테게」를 번역하면서도 한국어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소인무대’나 ‘도화역자’니 하는 낯선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어휘들은 누가 보아도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한자어임을 곧 알 수 있다.

人生은 大規模의 戯曲이 아니다. —  
그대가 생각함과갓치—罪와 罰의  
人生은 素人舞臺의 우에  
拙劣한 道化劇이다.

萬一 사람이 잘 演行하고  
萬一 道化役者が 自己를 英傑이라고  
恒常 생각지 안는다 하면  
그것은 오롯이 그다지는 걱정스럽잔호리라. (145쪽)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소인무대’ · ‘도화극’ · ‘도화역자’가 양주동이 ‘비어’로 비판하는 어휘들이다. 그가 말하는 ‘도화극역자’는 번역문에는 없고 다만 ‘도화역자’나 ‘도화극’이라는 말이 나올 뿐이다. 일본어 사전에 ‘素人’은 ‘玄人’의 반대말로 어떤 일에서 경험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인무대’란 전문적인 배우가 등장하여 연행하는 본격적인 무대가 아닌 아마추어적인 무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역시 일본어 사전에는 ‘道化者’는 사람을 웃기는 몸짓이나 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익살이나 장난기[戯け]라고 풀이되어 있다. 또는 피에로 같은 어릿광대를 뜻하는 ‘道化師’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로이톨트의 작품에서 화자가 말하는 인생이란 비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희극이요, 그 희극마저도 전문적인 배우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연극인 소극(素劇)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도화역자’란 그러한 소극에서 어릿광대의 역할을 맡은 배우를 가리킨다.

《동아일보》에 「《해외문학》을 읽고」라는 글을 발표하자 외국문학연구회 회원 중 몇 명이 반론을 제기하자 양주동은 같은 해 《신민》에 「문단여시아관」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由來 自國文에 졸렬한 자가 好譯文을 보

여준 예가 없다. 오직 어학적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번역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sup>14)</sup> 하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自國語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면, 구태어 翻譯에 있어서 外語를 襲用할 필요가 없다. 이상은 대개 洋語를 두고 하는 말이거나 朝鮮文壇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日語와의 交渉問題가 또한 중대한 意味를 가졌다”<sup>15)</sup>고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해외문학》과의 논쟁을 벌인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번역할 때 서양어이건 일본어이건 될 수 있는 대로 외래어나 남의 나라 말을 사용하지 말고 자국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평소 양주동의 주장이었다.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문학으로의 확장이라는 깃발을 내 걸고 출범한 외국문학연구회의 번역 태도가 양주동에게는 자못 못마땅하였을 것이다.

#### IV.

양주동의 글이 발표되자 이하운은 곧바로 《동아일보》에 「‘해외문학’ 독자 양주동 씨에게」라는 글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하운은 자못 격양된 목소리로 양주동의 비판에 반박한다. 그런데 그의 어조는 인신공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설득력이 약하다. 예를 들어 양주동을 두고 “明哲치 못한 一讀者”라든지, “愚鈍한 氏”라든지, “愚鈍한 感想力과 卑怯한 態度”를 지닌 사람이라든지 하고 부른다. 또한 그의 비평을 두고는 “아모러한 價値도 업는 讀後感”이니 “철업는 버릇 건방진 態度”라든지 또는 “酬酌”이니 하고 몰아세우기도 한다.<sup>16)</sup>

이하운은 이 글에서 번역 문체가 비록 처음에는 모국어 독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모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지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翻譯 때문에 日語가 發達을 얼마나 했는지를 首肯할 수 있다면, 翻譯 그 翻譯當時에 創作에 낫 하나는 文體 다시 말하면 大衆化할 수 있는 文體가 아니었겠고 오히려 翻譯文體가 오늘 日本의 文藝作品의 모든 것을 地排하고 잇게 된 것을 否定치 못할 것이다”<sup>17)</sup> 하고 밝힌다. 한마디로 오늘날 일본문학의 어휘는

14) 양주동, 「문단여시아관」, 『양주동 전집 · 11』, 213쪽.

15) 앞 글, 『양주동 전집 · 11』, 214-15쪽.

16) 이하운, 「‘해외문학’ 독자 양주동 씨에게 (1) · (2)」, 《동아일보》, 1927년 3월 19-20일.

17) 이하운, 「‘해외문학’ 독자 양주동 씨에게 (1)」, 《동아일보》, 1927년 3월 19일.

무엇보다도 번역 때문에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하윤이 이 글을 발표한 지 며칠 뒤 이번에는 김진섭이 양주동을 공격하고 나섰다. 「기괴한 비평 현상: 양주동 씨에게」라는 글을 써서 한편으로는 이하윤을 측면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주동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하윤보다는 비록 감정이 그렇게 격하지는 않지만 김진섭의 비판은 여간 신랄하지 않다. 김진섭은 “氏가 氏의 些少한 有能을 誇示함으로 偉大한 無能을 讀者의 압해 糊塗하라는 非倫理的 非美學的 酬酢에서 이 奇怪한 批評 現象이 出發한 것임을 나는 여겨 아니코운 嘔吐를 느낀다”<sup>18)</sup>고 포문을 연다. “사소한 유능”으로 “위대한 무능”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건전한 문학 논쟁보다는 자칫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양주동의 비판을 “비윤리적 비미학적 수작”으로 매도하는 것도 흥미롭다. 그러면서 김진섭은 양주동의 ‘기괴한’ 비평에 “아니코운 구토를 느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감정을 표현한 뒤 김진섭은 ‘비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는다.

氏의 말하는 非語란 무엇이나? 作品을 翻譯할 때에 잇서 우리의 生活이 全然히 原語가 要求하는 言語內容을 가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生硬한 外來語를 借用하는 수밖게 업슬 것은 分明하다. 여기 ‘不知火’, ‘素人舞臺’, ‘道化劇役者’가 詩의 言語될 當然한 權利를 主張하는데 무슨 誤謬가 잇느냐? 그것에 瞬間의不快를 느끼기 때문에 그 全價値를 否定하는 그 싸위 狹量한 純癡性은 言語發達史 乃至 翻譯文化에 대한 全然한 沒理解에 나온 安價하고 廢棄할 氣分主義 以上の 무엇이나? 호올로 不快를 發散함에 긋치는 것이 批評의 職能이더냐? 非語를 썼스니 었더탄 말이나?<sup>19)</sup>

김진섭은 양주동이 사용하는 ‘비어’라는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김진섭은 아무리 외래어가 생경하여도 자국어에 없는 어휘는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에게 번역자가 자국어에 없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빌려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김진섭은 “語彙의 豊富를 恒常 圖謀하고 造出하는 三種의 方法이 있다”고 전제한 뒤 바로 번역이 그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국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18) 김진섭, 「기괴한 비평 현상-양주동 씨에게 (1)」, 《동아일보》, 1927년 3월 22일.

19) 김진섭, 「기괴한 비평 현상-양주동 씨에게 (2)」, 《동아일보》, 1927년 3월 23일.

김진섭은 계속하여 “一卷의 詩史를 펴여보라! 所謂 氏의 非語가 얼마나 만흔가. 그것은 차차 自己 말이 되는 生命을 그 이튿날에 獲得할 수 있다. 이른바 世界文學의 概念이 實現된 오날 ‘非語’에의 嫌惡는 實로 一의 愚鈍이다”<sup>20)</sup> 하고 양주동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김진섭은 양주동의 비평이 언어발달사나 번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하는 ‘기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매도한다. 독문학을 전공하는 김진섭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가 말하는 ‘세계문학’의 개념에서 영향 받은 바 적지 않은 듯하다.

김진섭의 번역관은 비단 괴테한테서 영향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독일의 언어학자요 철학자인 카를 빌헬름 폰 훔볼트(Karl Wilhelm von Humboldt)한테서도 영향을 받았다. 훔볼트에 따르면 한 언어의 어휘는 다른 언어의 어휘와 일대일의 상응관계가 없으며 오직 유사어적 또는 유의어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자국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물며 독일어와 한국어처럼 서로 계통을 달리하는 어족(語族)의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西洋의 生活과 朝鮮의 그것이 얼마나 形式意志를 달니하고 짜라서 一見 自明的으로 보이는 譯語조차 얼마나 그 內包와 外延에 있어서 거이 符合할 수 없는 거이 結合할 수 없는 差錯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所謂 非語에 對한 不快感은 別로 誇示할 만큼 名譽로운 詩的感覺이 될 수가 업스리라.”<sup>21)</sup>

언어란 궁극적으로 문화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때 김진섭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한국어와 독일어처럼 상이한 언어 사이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김진섭은 언뜻 “자명하게 보이는 번역어조차”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외연과 내포에서 적잖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섭은 양주동이 자신의 번역에서 ‘비어’를 보고 느낀 불쾌감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시적 감각이 될 수 없다고 거꾸로 되받아 공격한다.

《해외문학》에 번역 작품을 게재한 외국문학연구회 회원 중에서 정인섭은 양주동한테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주동은 “소설 번역체에 있어서는 譯文의 工拙은 막론하고 爲先 鄭寅燮 씨의 譯이 正鵠을 얻은 것 외에는 거의 다

20) 앞 글.

21) 앞 글.

그러한 결함이 있고 ……”<sup>22)</sup> 하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정인섭은 양주동을 비판하면서 이하운과 김진섭을 측면으로 지원 공격하고 나섰다. 「번역 예술의 유기적 직능」이라는 글에서 정인섭은 양주동이 문제 삼은 비어를 다시 들고 나온다.

[兒童과 詩人]은 既成의 表現手段에 缺乏과 不自由를 느낄 때 얼마라도 새로운 音聲과 表現形式을 創造한다. 常識的文學者로서 보면 거기에 數多한 非語 비슷한 것이 있고 非文 비슷해 보이는 要素가 들어 있는 듯해 보이겠지 마는 想像力이 풍부하고 理解力이 強烈한 이는 그것을 能히 感得할 수 있는 것이다. (……) 文化程度가 未進한 社會가 그 社會에 없던 다른 新要素를 輸入할 때 거기에는 新作된 別名稱이 생길 것이요, 外國의 思想藝術을 朝鮮化할 때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新語와 또는 外來語를 使用하게 됨은 當然之事라 아니할 수가 없다. ‘新語創造’는 外部에 대한 자기의 철저한 解放이요 狹小에 대한 脫出이다. (……) 만일 어떠한 新語로써 그의 全意를 傳할 수 있다면 그러한 新語가 在來의 우리말에 없다 하더라도 그 新語를 使用함에 무슨 躊躇가 있으랴.<sup>23)</sup>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번역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는 정인섭은 김진섭과 마찬가지로 외국 작품을 자국어로 옮길 때 번역자는 어쩔 수 없이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신조어를 창조하는 것이 자국어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국수주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번역문에서 ‘비어’나 ‘비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양주동이야말로 “상식적 문학자”가 아닐뿐더러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해력이 강렬한” 문학자가 아니라고 넌지시 폄하해 버린다. 이렇게 신조어나 외래어가 모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정인섭은 김진섭이나 이하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김진섭이 “비어를 썼스니 엇더탄 말이나?” 하고 사뭇 감정적인 어조로 따지는 반면, 정인섭은 “신어가 재래의 우리말에 없다 하더라도 그 신어를 사용함에 무슨 주저가 있으랴” 하고 수사적 의문문을 구사하여 완곡하게 말할 뿐이다.

22) 《동아일보》 1927년 3월 3일; 『양주동 전집 · 11』, 189쪽.

23) 정인섭, 『한국문단논고』(서울: 신흥출판사, 1959), 56-57쪽.

## V.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의 번역에 대한 양주동의 비판은 모든 번역자라면 마땅히 귀담아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서양의 번역 이론가 사이에서도 거의 언제나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번역체를 딱딱한 경문(硬文)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문(軟文)을 사용하여야 하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되 의역을 하여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살려야 하며, 번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외래어나 신조어를 삼가고 모국에서 통용하는 어휘를 골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뒷날 영문학자보다는 국문학자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될 양주동은 특히 모국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 것은 주목하여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망국적 폐단을 일부라도匡正키 위하여서는 우리는 매우 자국어의 보존과 발달을 힘쓸 것인 동시에 외어의 침입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지적한다. 또 “[일본어식 한자들] 그냥 쓰는 것은 亡國無骨民들의 무식몽매한 수작이다” 하고 밝히는가 하면, “자국어를 모르고 더구나 자국문자를 버리고 만연히 생경한 外字를 쓴다는 것은, 나로서는 萬萬不可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한다.<sup>24)</sup>

한편 《해외문학》에 실린 번역 작품에 대한 양주동의 비판에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1926년 도쿄에서 외국문학연구회가 결성되고 그 이듬해 1월 기관지 《해외문학》 창간호가 나오기 몇 해 전인 1923년 양주동은 손진태(孫晉泰)·백기만(白基萬)·유엽(柳葉) 등과 함께 문예잡지 《금성(金星)》을 발간하면서 번역에도 자못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적어도 시기적으로 본다면 《금성》 동인들은 외국문학연구회보다 무려 4년 앞서 외국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한국 문단에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양주동을 비롯한 동인들은 샤를 보들레르와 폴 베를렌 같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작품과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이반 투르게네프 등의 작품을 번역하였다. 한국어로 번역할 외국문학을 선정하는 데에서도 두 잡지는 서로 적잖이 겹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문학》의 창간은 《금성》 동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더구나 《해외문학》 회원들이 주로 호세이(法政)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중심이었다면, 《금성》의 동인들은 주로 와세다대학에서 외국문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주

24) 양주동, 「문단여시아단」, 『양주동 전집 · 11』, 215쪽.

축이 되었다는 사실도 경쟁을 부추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 동인들은 《해외문학》의 번역에 대하여 처음부터 시선이 고을 리가 없었다. 가령 양주동이 《해외문학》의 번역에 대하여 내린 “譯詩는 창간호 내의 것이 거의 不成績인 듯하다”는 평가는 아무런 사사로운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하운의 시 번역에 대한 양주동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령 베를렌의 「가을노래」 번역과 관련하여 양주동은 이하운이 기점 텍스트의 한 어휘를 누락시키고 번역하여 오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양주동은 “譯詩로는 「비울롱」이 제 가슴을 괴롭힌다는 듯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잘못이니 대개 Blessent mon coeur의 mon 한 字를 빠뜨린 연고이다”<sup>25)</sup> 하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하운의 번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일부러 시적 화자 ‘나’를 생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을날 / 예오롱의 / 기-ㄴ 울음은 / 單調러운 / 애닦힘에 / 가슴을 괴롭히노나”(110쪽)에서 “내 가슴을……”이라고 번역하였더라면 오히려 시적 긴장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하운도 지적하듯이 메이지(明治)와 다이쇼(大正) 시대에 걸쳐 번역가로 이름을 날린 우에다 빙(上田敏)도 이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mon’ 자를 생략하고 옮겼던 것이다. 또 이하운이 번역한 베를렌의 또 다른 작품 「내 가슴 속에는 눈물이 퍼붓네」에서도 양주동은 제3연에서 ‘trahison’을 ‘逆情’이라고 옮긴 것을 오역이라고 지적한다.<sup>26)</sup> 그러나 기점 텍스트 “Quoi! nulle trahison?.....”에서 마지막 어휘는 ‘배신’이나 ‘반역’을 뜻한다. 사랑을 배반하였다는 뜻에서 일부로 ‘역정’이라는 말로 옮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하운은 어디까지나 오식(誤植)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sup>27)</sup> 물론 이 ‘역정’이라는 어휘는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서 내는 성이나 노여움과 혼동할 염려가 없지 않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흔히 “What! No betrayal?.....” 하고 번역하고, 한국어로는 좀더 쉽게 “뭐, 배신을 당했나구?.....”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주동의 비판에 대하여 이하운·김진섭·정인섭 같은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은 양주동의 비판에서 핵심적 내용을 비켜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5) 양주동, 「《해외문학》을 읽고」, 《동아일보》 1927년 3월 4일; 『양주동 전집』 11, 190쪽.

26) 앞 글, 『양주동 전집』 11, 190쪽. 『양주동 전집』에는 ‘trahison’이 ‘trahiron’으로, ‘逆情’이 ‘逆精’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27) 이하운, 「《해외문학》 독자 양주동 씨에게 (2)」, 《동아일보》, 1927년 3월3월 20일.



정인섭을 제외한 다른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은 양주동이 제기한 ‘비어’만을 문제 삼을 뿐 나머지 두 문제, 즉 축역과 의역 그리고 연문을 구사하는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그들은 양주동의 비판 중에서 가장 공격하기 쉬운 문제만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한 김진섭이 양주동에게 “언어발달사 내지 번역문화에 대한 전연한 물이해에 나온 안가하고 폐기할 기본주의 이상의 무엇이냐? …… 비어를 썼스니 엇더탄 말이나?” 하고 따지는 것도 건설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순수한 학문적 열정과 모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하였건, 아니면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하였건 외국 문학연구회 회원들과 양주동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번역 논쟁은 한국 번역사에서 자못 중요하다. 특히 양주동의 두 논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번역사에서 가히 획기적인 업적으로 기록될 만하다. 심지어 서양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번역 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이다. 20세기 초엽 번역이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이렇게 번역과 관련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 논쟁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서울: 소명출판, 2010.
- \_\_\_\_\_. 『근대의 세 번역가: 서재필 · 최남선 · 김억』. 서울: 소명출판, 2010.
- 김진섭. 「기괴한 비평 현상—양주동 씨에게」. 《동아일보》, 1927년 3월 22-23일.
- \_\_\_\_\_. 『교양의 문학』. (신세계문고 · 8). 서울: 진문사, 1955.
- 양주동. 「《해외문학》을 읽고」. 《동아일보》 1927년 3월 2-4일.
- \_\_\_\_\_. 「문단여시아단(文壇如是我觀)」. 《신민》 26호 (1927년 6월).
- \_\_\_\_\_. 『양주동 전집 · 11』 (평론 · 번역).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8.
- 외국문학연구회. 《해외문학》 창간호, 1927년 1월.
- \_\_\_\_\_. 《해외문학》 제2호, 1927년 7월.
- 이하운. 「《해외문학》 독자 양주동 씨에게」. 《동아일보》, 1927년 3월 19-20일.
- 정인섭. 『한국문단논고』. 서울: 신흥출판사, 1959.

Wook Dong Kim (2010).

Debates on Translation between Joo-dong Yang and the Society for Research in Foreign Literature.

Foreign Literature Studies, 40, 57-76.

**[Abstract]**

Descriptive rather than analytic in its approach,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disputes over translation between Joo-dong Yang and the Society for Research in Foreign Literature, a literary society established by Korean students who majored in foreign literature at colleges in Tokyo, Japan, in the late 1920s. The debates occurred in the spring of 1927 when Yang criticized most of translations in Foreign Literature, a magazine published by the member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Foreign Literature, for being poor—so poor, in fact, that they could be seen as “a nearly total failure.” Yang’s somewhat acrimonious criticism was based on three premises: 1) translators should employ fluent style so that the reader of the target text may have easy access to the translated works; 2) they must try to render the source text into the target language freely rather than render it too literally; and 3) they should be very careful when they use loan-words and calques. A strong defender of the Korean language as well as Korean literature, Joo-dong Yang argues that the translators have failed in these three aspects and that most of the translations in Foreign Literature suffer pitifully where readability is concerned. Some members of the Society, such as Ha-yoon Lee, Chin-sup Kim, and In-sob Zong, immediately joined in answering back to Yang’s critique, pointing out that new vocabulary and phrases, however strange and awkward they seemed at first, would become domesticated. Cosmopolitan in their weltanschauung, the members strongly maintained that loan-words and calques in translation w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arget language.

[Joo-dong Yang, Jin-sup Kim, Ha-yoon Lee, In-sob Zong, the Society for  
Research in Foreign Literature]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College

논문투고일: 2010년 9월 3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13일

김 옥 동

한국외국대학교 영어대학 통번역학과 교수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대 국제학사 A-905

Tel: 02-2173-2710

E-mail: [wdykim@gmail.com](mailto:wdykim@gmail.com)

